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정력 총동원

도, 익산 산복천 재해복구 용두산 급경사지 등 점검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앞두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응 태세 현장점검에 나섰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5일 하전 익산시 부시장,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익산시 산복천 재방 재해복구 공사 △창리 배수펌프장 복구 현장 △용두산 급경사지 정비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공사현황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먼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산복천 재방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 보강, 배수통 문 설치 등 공사 진척도를 점검하고, 호우로 인한 산복천 일원의 침수예방 대책 등 우기철 대비상황을 살폈다. 이어 호우 침수피해가 발생한 창리 배수펌프장 복구 현장을 찾아 우기철을 대비해 파손된 토출관을 응급복구 하였고, 가동상태를 사전 점검했다. 현장을 살핀 최 부지사는 영농기에 차질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가 재

발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재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관계관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재해 복구공사는 6월 우기 이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하도록 역공정 계획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하고, 우기전까지 미완료되는 시설은 호우시 현장 수시 예찰, 인력 및 장비 사전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두산 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우기 대비 예방과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용두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694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76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사전 대비 기간 한발 빠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사전 정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 점검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도내 5곳 선정... 2년간 홍보 지원

순창 실랜드·완주 아원고택 신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2월~4월에 실시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및 신규 선정 평가에서 5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진안 홍삼스파·무주 태권도원·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이 재지정되었고, 순창 실랜드와 완주 아원고택이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역량교육 지원, 대국민 웰니스 관광 이벤트 참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뷰티·스파 테마에 진안홍삼스파가, 한방 테마에 완주 구이안덕마을이, 힐링·명상 테마에 무주 태권도원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3개소 모두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받았다.

진안 홍삼스파에서는 홍삼을 테마로 한 음양오행 테라피 등 다양한 건강증진 스파와 마이산을 배경으로 노천탕을 즐길 수 있다. 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에서는 청정자연속에 위치한 한의원과 숙뜸치료, 황토한증막, 황토펀션, 꽃길 산책로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힐링 태권체조, 수련명상 등 한국만의 동적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평가에서 푸드테마로 순창 실랜드가, 스테이(숙박) 테마로 완주 아원고택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선정되었다.

실랜드는 편백 방갈로와 숲속 명상관, 찜질방, 골드 룩실을 보유하고, 순창의 건강장수 특화자원인 발효를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고추장 만들기, 고추장 피자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등 내외국인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푸드 테마에 신규 선정되었다. 완주 아원고택은 완주군 종남산과 위봉산성의 품안에 위치한 270년된 전통 한옥 숙박 시설로, 아원고택 숙박을 통해 한옥 건강수면 체험과 자연의 풍광과 함께 노천탕을 즐길 수 있으며 다도 명인과 함께하는 다도 체험, 국내의 유명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 관람으로 그림 치유와 명상 및 사색을 체험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스테이(숙박) 테마에 신규 선정되었다.

전북자치도는 늘어나는 치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30개소 선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형 치유관광지에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5개소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진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은 "전북은 자연환경, 전통문화, 음식 등 웰니스 관광 활용 자원이 풍부하므로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전북 관광으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64개소를 선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수 관광지로 추천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부터는 추천 웰니스관광지를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로컬 음식 및 문화 경험을 선호하는 글로벌 웰니스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치유, △한방의 4개 테마에서 △푸드, △스테이(숙박) 2개 테마를 추가하여 총 6개의 테마로 선정했고, 타 경쟁국과 차별화된 방한 관광객 대상 추천할 수 있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우선 선정했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산업 육성 네트워크 확장

전북자치도, 분당 서울대병원과 협약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과 연계한 임상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국천 전북대 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완벽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자체 연구 클러스터인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전영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가운데)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안국천 전북대 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기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임상분야 공동연구개발·기술교류의 성장 및 대학·병원간 연구인력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에 성장에 탄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및 병원 간 연구인력 교류 △임상 및 비임상 기술교류 △임상 관련 공동연구개발 △바이오분야 R&D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1번지 국가대표 등극

'국가대표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행정의친기업 정책 등 호평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대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기업유치 1번 지명이 입증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엠버서더서울폴리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 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

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친화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표준모델로 평가됐다. 민선8기 기업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기업유

치와 창업 촉진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 구현을 위한 친기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2조원의 기업 투자유치와 1조원의 창업펀드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에 따라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금융산업, 4차산업혁명 신산업 등 기업이 필

요로 하는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선제적 테스트베드 역할과 규제혁파를 적극 수행하는 등 미래 신산업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친기업(Business Friendly) 정책으로 △17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확대(전북도 시도시행 후 14개 전시군으로 확대 시행, 2,500여개 기업에 전담공무원 1:1 매칭, 기업애로 등 해결)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기업과 행정기관간 실시간 소통 및 애로해소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